

● 공덕귀 선생님을 추모하며 - 성명옥 공동대표

- 그들과 함께, 낮은 자리에서 -

[상징적 행위: 상위계층에서 낮은 자리로 내려오시고, 구속자 가족들에게
금일봉전달하는 모습을 KSCF학생들이 재연]

공선생님은 동양의 베니스라 불리는 충무에서 태어나셨다. 아버지는 망국의 한을 안고 일찍이 별세하시고, 믿음의 여장부인 어머니 슬하에서 자랐다. 여학교 시절부터 선교사의 꿈을 키워 온 그는 일본에서 요코하마신학교와 동경여자신학교에서 수학하시고, 귀국하여 김천 황금동교회에서 전도사로, 조선신학교(한신대학교 전신)에서 가르쳤다.

40세 가까이에 그는 미국의 프린스턴신학교에 입학허가서를 받고 준비 중에 서울시장 윤보선(해위)과 결혼하였다. 시대의 가풍에 적응하기 위한 대단한 훈련도 받으셨다. 하지만 대단한 윤씨 가문에 시집가서 추도에배를 인도하는 전도사의 역할을 집안에서도 당당히 해 내셨다. 당시로는 혁명적인 일이었을 것이다. 시모님의 대가를 이끌어 가는 모습을 존경하면서도 한국의 윤리도 바꾸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여성에 대한 남성의 이해와 관심이 넓혀져야 하고, 여성들의 헌신적인 삶을 당연한 것으로 보지 말고 깊이 생각하여 복지에 대한 배려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불평등한 여성의 삶을 직시하였다.

선생은 남편의 대통령 취임식에 영부인을 초청하지 않음을 보고 차별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정부가 얼마나 가부장적일지 보지 않아도 알만한 일이라고 했다. 3선 개헌으로 해위가 정계를 떠나면서 이후 공 선생은 자신이 공적 활동으로 나서게 되었다. 여기서 공적활동이라 함은 교회 여성들과 함께 하는 일이었다. 선교사와 유학의 꿈을 버린 그는 교회를 향한, 그것도 교회 여성들의 의식화를 위한 활동부터 시작하였던 것이다. 개 교회와 여전도회 지연합회 활동을 하면서도 사회의식화 교육을 실시하면서 회원의식화 교육을 하기에 이르렀다. 교회여성연합회에서도 중요한 자리를 두루 거치면서 힘들고 어려운 험난한 민주화 운동과 여성인권 운동에 몸담으면서 교회일치 운동,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핍박받는 노동자들과 함께, 구속자들과 함께, 기생관광 반대운동, 원폭 피해자 돕기 운동 등을 하면서 선교사로서 못다 한 꿈을 이루는 삶을 살았다.

특히 민주화 운동 중에 많은 구속자들과 그 시대의 양심수들과 그 가족들에게 어머니 역할을 하면서 많은 어려운 일도 당하셨지만 끝까지 기도하면서 잘 감당하였다. 연명한 연세에도 박순경 박사가 구속되었을 때는 석방운동과 아울러 재판정에 매번 참석하는 열성을 보이기도 하였다. 또한 어려운 민주화운동에 선 사람들을 보면 언제나 그는 파스한 손길로 하양봉투를 살며시 손에 쥐어 주곤 하였다. 이러한 운동에 참여하면서도 여신협에서 하는 여성신학 강좌 등 새로운 신학의 조류를 공부하는 일에도 게을리 하지 않으며 늘 자신을 가다듬던 분이였다.

“그는 현대의 시대정신과 신학사상이 말하고 있는 정의와 평화가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 예수의 혁신적인 여성관에 대한 이해, 그는 가는 곳마다에서 인권이 유린된 피폭자들, 구속자들, 여성들의 문제를 외쳤으며 이 나라의 민주화와 통일을 앞당기자고 호소하였다. 심지어 가족들의 추모예배에서도 이런 선포를 빼놓지 않았

다”고 여신험 여신험자 연구반에서 <나, 그들과 함께 있었네>를 대표 집필한 이현숙은 증언하고 있다.

실로 공 선생은 우리나라 근대 역사에서 사회와 교회의 현장을 골고루 체험하신 삶을 살아온 분이였다. 그는 한때 짧은 기간이지만 대통령 영부인이였지만 그 후에는 거리와 공장에서 독재정권에 맞서는 장에서 가부장적인 문화를 여성들도 평등하게 살 수 있는 평화와 정의가 바로 서는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애쓴 여성 신학자로서의 삶을 사신 분이였다.

● 이우정 선생님을 추모하며 - 이문우 전공동대표

- 평등사회를 꿈꾸며 -

[상징적 행위: KSCF학생들이 여성노동자들이 폭력에 휩싸일 때 폭력을 행사하던 이들에게 맞서 싸우는 모습을 재연.]

이우정선생님은 1923년 8월1일에 경기도 포천에서 인조대왕의 11대 손으로서, 그리고 며느리의 삶을 보고 여성의 비인간적인 삶에 주목하여 “자유종”을 쓴 소설가 이해조의 손녀로 태어났습니다. 할아버지의 영향을 받은 이우정선생님은 경기여고를 졸업한 후 일제하에서 정신대로 강제 동원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결혼을 시키려는 아버지의 강압을 피해 기독교에 입교합니다. 교회만이 우리 민족을 해방 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졌던 것입니다.

해방직후에 이우정선생님은 한국신학대학의 전신인 조선신학교에 입학합니다. 그리고 1951년 부산 피난살이 속에서 졸업을 하고 캐나다로 유학, 1953년에 귀국하여 한국신학대학의 교수가 되면서 여학생들의 지도까지도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다가 1970년에 교내분쟁에 휘말려 17년간 봉직했던 한국신학대학을 떠나십니다. 그 후 서울여대에서 교수로 계시면서 교회여성운동에 참여하셨는데 이 일은 군부독재의 유신체제에 반기를 드는 것이어서 교수직과 운동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하는 기로에서 교수직을 포기하고 고난의 운동길로 들어서십니다.

기장여신험회 활동을 계기로 한국교회여성연합회회장직을 맡게 되면서, 국내민주화 문제뿐만 아니라 여성인권문제, 일본인 기생관광문제, 원폭피해자들의 문제, 특히 유신체제타도와 민주화를 위한 운동으로 투옥된 학생들, 청년들, 종교지도자들, 여성근로자들의 석방운동에 앞장서셨습니다. 그런 일로 중앙정보부에 끌려가서 몇 차례 모진 조사를 받으시기도 했습니다.

1976년 3월1일에는 3.1절 명동성당기도회에 참석하여 해직교수, 종교인, 재야인사 11명이 준비한 ‘3.1민주구국선언’을 낭독함으로 관계자 18명이 모두 구속되었고, 5월에 ‘대통령 긴급조치9호’ 위반으로 기소됩니다. 아시아는 물론, 서구의 교회여성들의 후원으로 옥살이는 면했지만, 이미 낙인이 찍힌 이우정선생님은 그 행보가 부자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의를 향한 그의 투지를 멈추지 않았고, 인권문제와 민주화문제가 발생한 곳에 항상 함께 서계셨습니다. 그들의 후원자로 지지자로, 위로자로 고난을 함께 하셨습니다.

한편, 1970년대 후반에는 교회여성연합회 회원들에게 성서연구를 통해 여성신학을 강의함으로써 한국교회에 최초로 여성신학을 전파하신 분입니다.

1980년 봄 이우정선생은 국제회의 참석차 미국으로 갔는데, 5.18 광주민주항쟁이 일어나 지인들의 권고로 미국에 장기체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9월에는 유니온 신학교 초청교수가 되어 여성신학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그 동안의 자신의 활동을 정리하였습니다. 귀국 후 여성신학 확산을 위해 많은 강의를 하였고 성서연구를 전개하였습니다. 그리고 1984년부터 진보여성단체들과 연합하여 여성생존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양한 운동을 전개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1987년에 여성단체연합(여연)을 결성하여 여성운동을 결집하고, 체계화하고, 여성의 인권문제는 물론 제도개혁과 여성의 정치참여를 구체화하는 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90년도에 들어서서는 남북분단문제에 각별히 관심을 갖고 통일을 이루는 일에 앞장서서 일하셨는데 1991년에는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이라는 남북여성모임을 서울에서 가졌고 1992년에는 평양에서 갖도록 몇 분의 지도자들과 함께 큰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여성신학을 몸으로 산 행동신학자였습니다.

1992년에는 국회의원으로 영입되어 여성으로, 신앙인으로, 정치인으로 4년 동안 정치생활을 하시면서 여성들의 지위와 인권향상을 위한 법을 고치고 제정하는 일에 초석을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생의 마지막으로 평화통일을 염원하여 "평화여성회"를 결성하고 초대 이사장으로 일하시다가 2003년 5월30일 소천하셨습니다.

이우정선생님은 아주 작은 체구를 갖고 사셨지만 모든 고난을 다 받아넘기기에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고, 하느님의 말씀대로 신앙 안에서, 민족을 위해, 여성을 위해, 눌린 자를 위해 자신을 송두리째 다 주는 아주 위대한 삶을 사신 분이었습니다.

이우정 선생님, 선생님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 이선애목사님을 추모하며 - 김엘리 선생 (평화를만드는여성회 공동대표)

- 아하! 여성신학이다. -

[상징적 행위: KSCF학생 중 한 사람이 앉아있고 그 사람 머리위에 조끼나 스카프 등으로 나머지 사람들이 덮는다. 그 후 이선애목사에 대한 증언을 들으며 차례로 덮은 것들을 다시 벗겨준다. 여성신학을 접하기 전의 여성억압과 여성신학을 알고 난 후의 해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이선애 목사님은 시인이자 여성신학자이자 아시아여성활동가입니다. 당시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아시아'성을 이야기하고 종교가 여성의 몸에 대하여 무엇을 말하는지 포착하여, '아시아' 여성들의 다양한 삶을 드러낸, 선각자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목사님은 민족, 인종, 계급에 의해 차별을 받았던 여성들의 삶을 드러내면서도, '여성'이기에 받았던 성차별을 무엇보다도 강조하고, '여성'이기에 서로 만날 수 있었던 자매애를 중심에 두었던 초국가적 여성주의자였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선생님을 만난 날, '자 여기서 일하는 거네' 라며 나를 안내했던 방. 그 곳에는 책상 위에 영어타자기 하나 달랑 있었습니다. 저으기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그거야 말로 그동안 아시아 나라를 돌아다니며, 많은 아시아여성들의 삶과 삶을 연결시킨 것이었지요. 그것은 <인 갓즈 이미지>를 산출한 현장이었습니다.

그 방은 그동안 목사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보여주는 것이었지요. 흔히 하는 말로 맨 땅에 헤딩이지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이룬 것입니다. 그저 목사님의 열정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불의에 대한 분노가 있었습니다. 살아 생전에 남편이었던 박상중 목사님이 가끔씩 이선애 목사님을 놀리느라, “당신은 남성에 대한 그 분노를 좀 어떻게 해야 해.” 라고 말하곤 했어요. 그런데 이선애 목사님은 그 농담도 농치지 않고, 까랑까랑한 목소리로 여성이 어떻게 사는지 그 현실에 대해 따져 말하곤 했지요. 한 치의 양보도 없었습니다.

지금 정의로운 목사님의 그 분노가 한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의 비전이 된 것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앞서서 보인 그 문제의식이 이제 후배인 우리들의 실천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독교여성운동에서, 평화운동에서, 이주여성운동에서, 여러 이론적 활동에서 이선애 목사님의 숨결이 살아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서서 목사님을 기억할 수 있는 건, 살아있는 목사님의 그 자취를 먹고 자랐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목사님이 그리운 것은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을 남겨두신 목사님의 해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만날 수 있습니다.

내 방 벽에는 한 장의 사진이 오랫동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선순화 목사님, 이선애 목사님, 그리고 카렌, 당시 함께 일했던 분들과 밥상 앞에서 함께 찍었던 그 모습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게 나에게는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여전히 역동적으로 살게 하는 힘입니다.

오늘, 이선애 목사님의 환한 미소가 유난히 아름다운 날입니다.

● 선순화 목사님을 추모하며 - 이향림 (한알심리예술센터 대표)

- 민중으로, 생명으로 -

[상징적 행위: 이향림씨가 생명, 몸, 민중에 대한 애정을 춤으로 형상화함.]

선.순.화. 그는 모든 것이 풍족한 호남평야에서 자라났지만 그것의 열매를 가지지 못하는 민중으로 살았다. 그는 생태학적 감수성을 길러준 고향에 고마워하면서도 그것을 낭만화하지 않는다. 먹을 권리를 철저히 박탈했던 그 가난의 경험을 통해 그는 북녘 동포의 배고픔에 분노할 줄 알게 되었다. 농촌계몽운동에 대한 꿈을 안고 진학한 임학과에서는 기대와는 다른 것들을 배우게 되고 토크니즘(Tokenism)의 혜택으로 잘 나가는 여성공무원이 되었지만 독재 정권 아래 우리나라를 밝혀 줄 소망을 예수에게서 발견한 후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되고자 목사가 되고 신학 공부를 하게 되었다. 파편화된 학제적 접근에 한계를 느끼면서 통전적인 신학자로서의 삶을 구가하면서 동시에 동양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놓지 않기 위해 동양의 종교와 문화를 연구하는 일에 많은 정성을 쏟기도 하였다.

귀국하여 생명이라는 화두로 일하던 그는 그러나 얼마 안가 유방암이 발병하여 길고 긴 투병 생활을 시작한다. 그 지난한 과정을 통해 그는 몸과 생명, 죽음에 대해 좀 더 본질적인 연구를 하게 된다. 병은 진실로 하나님께서 주신 휴식이라는 의식과 함께 ‘생명’은 모든 영성생활과 학문생활의 화두로 자리하게 된다. 그의 삶과 신학은 그래서 그야말로 풍토따라 걸어온 여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바라봄의 횡포를 극복하기 위해 객체를 구분하여 대상화하는 것을 피하고 일체화를 위해 노력했던 사람이다. 상대방과 일체를 이루기 위해 현상으로서의 나인

‘주체’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현상으로서 보이는 상대를 ‘객체’로 대상화하지 않는 것, 그야말로 ‘공유’를 위해 노력했다.

변화하는 몸의 이미지를 통해 목회를 보았으며 여성의 삶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을 통해 여성적 경험이 신학 작업에 통합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 또 해산이라는 몸의 이미지로 인생의 깊숙한 경험들인 설렘, 인내, 고통, 죽음, 기쁨, 풍요, 돌봄, 안식 등에 대한 신학적인 성찰을 시도하였다. 그리고 몸을 신앙적 성찰의 상대로 설정한다는 것을 통해 복합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보면서 신학은 결코 추상적인 언어의 장난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선순화 그는 과학자요 신학자로 깊은 학문의 경지를 구가하면서도 지난한 몸의 고통 앞에서도 결코 엄살을 피우지 않는 인간적 사랑을 넘어 더 넓고 깊은 사랑을 깨우치고 간 여인이다.

선순화, 그는 철저히 자신의 몸의 씹어감을 직접 목도하며 죽음의 순간을 맞이한 여인이다. 그리고 이 세상에 생명의 씨앗도 없이 사라진 여인이다. 그러나 그 여인의 흔적은 하나님의 큰 역사의 물줄기 안에 남겨져 있음이 분명하다.

사라진 선순화 님을 꿈에서 보았다는 사람들이 간혹 있다. 그가 못다한 꿈과 소원을, 그리고 소외된 여인들의 아픔들을, 따뜻한 미소로 품어주고 안아주며 사랑이 넘치는 인간 세상을 위해 노력하며 그를 기억하고 싶다.

“생명 세계의 개체성, 관계성, 전체성이라는 삶의 그물망을 그려내어도 그 그물 사이에 뚫려 있는 틈과 사이가 나로 하여금 삶의 신비에 경의를 표하게 한다”는 그의 고백은 삶의 신비를 잊지 않았던 신비주의적 영성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 나는 나의 풍토, 조국의 풍토, 인류의 풍토에 충실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의 소망은 이제 우리들을 통해 다시 이어지리라 믿는다.

● 레티 러셀 박사님을 추모하며 - 정숙자 전공동대표

- 교회를 동글게 -

[상징적 행위: KSCF학생들이 계급적이고 권위적인 교회의 모습을 계단식 자리 배치와 근엄한 포즈로 보여주다가 하나하나씩 원을 만들어 평등한 교회 공동체를 만드는 모습을 보여준다.]

Letty Russell 박사는 1929년 9월20일에 미국에서 태어났으며, 1951년에 웰즐리대학의 성서역사와 철학과를 졸업한 후(B.A.), 하버드신학대학에서 신학과 윤리를 전공하여 1958년에 학사학위(S.T.B.)를 받았습니다. 그 후 뉴욕의 유니온신학교에서 1967년에 석사학위(S.T.M.)를, 1969년에 신학박사학위(THD)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요하네스 호켄다이크 박사와 결혼하였으나, 자녀를 얻지 못하였고, 일찍이 과부가 되셨습니다.

1951년부터 교육의 현장에 섰고, 1952년부터는 뉴욕의 빈민가에 위치한 이스트할렘장로교구에서 기독교교육담당자로 일하다가, 1958년에 이스트할렘장로교구의 어센션장로교회 목사로서 미국연합장로교에서 안수를 받고, 여성목사 1호가 되었습니다. 1968년까지 17년간 계속 이스트할렘교구의 어센션장로교회의 목회자로 시무하면서 빈민선교에 젊음을 바치셨습니다. 1969년에 맨해튼대학의 기독교교육 조교수로 그리고 1974년에 예일대학신학부교수로 후배양성에 힘쓰면서, RSAC (Racism, Sexism, Ageism,

Classism) 운동을 전개하면서, 17년간의 목회실천을 토대로 미국의 여성신학을 정립함과 동시에 인간의 모든 차별철폐운동에 앞장서셨습니다.

Letty Russell 박사는 에큐메니컬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미국장로교총회 내 뿐만 아니라 세계교회협의회(CWC)의 신앙과 직제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제도적인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성들과의 연대를 계속 유지하여 미국 YWCA연합회, 미국연합감리교여성위원회, 그리고 WCC여성위원회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여성의식화운동에 앞장서셨습니다. 특히 여성들이 창조하는 새로운 교회를 꿈꾸며 WCC여성위원회의 소위원회인 Women's Vision on Being Church 그룹을 지도하면서 교회개혁에 앞장서셨습니다. 약 15년 전부터는 샌프란시스코신학교의 객원교수로 봉사하면서 여성신학을 전공하는 목회학박사과정을 신설하여, 제3세계의 여성신학도들을 여성신학자로 훈련시키고 지도자로 양성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2007년도 1월에 이미 위암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으면서도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2008년도 프로그램까지 계획하셨습니다. 그러다가 2007년 7월12일에 하느님 곁으로 가셨습니다.

Letty Russell 박사는 이선애목사의 요청으로 1983년에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여 3주간에 걸쳐서 여성신학을 전파하셨는데, 본회와 부산신학교에서 각 2회씩, NCC여성위원회, 교회여성연합회, 서울YWCA, 부산YWCA, 광주YWCA, 기독교교육협회, 감리교신학대학, 장로교신학대학, 전주한일신학교, 목원대학에서 각 1회씩의 강연을 하였고, 150명의 남녀신학생이 참석한 1박2일의 성서세미나에서 약 4회의 그룹지도 등, 큰 집회 강의만 해도 약 20회 정도를 하였고, 그 외의 작은 회의와 대화모임들이 있어서 거의 쉬는 시간이 없이 강행군을 하면서, 한국에 여성신학의 뿌리를 내리도록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주 커서 예일대학 학생들을 데리고 1988년에 다시 한국을 방문하였고, 한국여성신학회가 주최하여 Letty Russell 박사를 모시고 모인 한국·재일·일본 여성신학 1차 세미나(포럼)의 초석을 놓아 주신 분이십니다.

그 분을 만나 나의 인생도 새로워졌습니다. 내가 그분에게 배운 것은 여성신학이란 삶과 행동이 동시에 일어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삶을 Letty는 Church in the Round라고 표현했습니다. 둥글게 앉아서 모인 자매들의 모임 속에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이 여성신학이었습니다. Letty가 나로 하여금 그 진리를 깨닫게 하기위하여 여러 가지 국제회의에 불러 들여서 나를 지켜보셨다는 것을 그가 가신 후에 깨달았습니다. 만날 때 마다 그녀는 나를 제자로서가 아니라 친구로 대하여 나를 감동시키셨습니다. 마치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의 삶에 감동하여 참 제자가 된 것과 같은 것입니다. 배우고 가르치는 관계가 상하의 관계가 아닌 동근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느님, 예수, Letty, 그리고 내가 하나로 엮어진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Letty는 나의 영원한 스승이십니다. 선생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In God's Image" 25주년 축하행사를 마치고

정숙자 (이주여성교회 목사/남양주이주노동자여성센터 소장)

한국여성신학자협의회가 지난 1월15일에 기독교회관 대강당에서 가진 IGI 25주년기념 축하예배의 공동준비위원장(성명옥, 이은선, 정숙자)의 한 사람으로 이번 “한국여성신학” 지의 특집에 이 글을 올림으로써, 오랜만에 여신협회원 여러분에게 인사드리는 기회를 갖게 되어 기쁩니다.

현재 본인은 남양주에서 이주여성교회 목회와 이주노동자여성센터를 통한 이주노동자, 특히 이주여성노동자의 인권옹호에 여생을 바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여성자료센터(Asian Women Resource Center)의 운영체계인 CTM(Coordinating Team Members)의 일원으로 아시아여성신학자와의 연대를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2007년 1월 CTM회의에서 12월이면 IGI가 25주년을 맞는다는 보고를 듣고, 한국에서 25주년축하행사를 갖기를 제안했습니다. 그 제안은 기쁘게 받아들여졌고, 제안자에게 행사이행의 책임이 맡겨졌던 것입니다.

이러한 제안을 하게 된 이유는 축하행사 당일에 발행한 축하예배 순서지의 인사말에 다음과 같이 밝혀져 있습니다. “아시아의 여성신학 In God's Image(IGI)가 1982년 말 이선애목사님에 의해 창간 된지도 벌써 25년이 되었습니다. IGI는 지난 25년 동안 인종도 언어도 문화도 종교도 서로 다른 아시아의 여성들, 아시아의 여성신학자들을 여성신학(feminist theology)이라는 단어 하나로 연결시켜 왔습니다. IGI는 아시아 여성신학 지도자들의 글을 세계로 소개하는 통로가 되어 많은 지도자를 양성하는 길을 열어왔습니다. IGI를 통하여 우리는 아시아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하고 놀라운 여성문제에 접할 수가 있었고, 우리의 억울한 이야기를 다른 아시아국가의 동료들에게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IGI는 그 모체인 아시아여성자료센터(AWRC)를 탄생시키기도 했습니다.”

이선애목사는 1970.80년대에 남편인 박상증목사가 WCC(세계기독교협의회) 직원으로, 그리고 CCA(아시아기독교협의회) 총무로 일했던 당시, 많은 교계인사들과 신학자들과의 만남을 통하여, 그중에서도 특히 서양여성신학자들과의 만남을 통하여, 아시아여성, 특히 아시아여성신학자들의 세계로 향한 지도력의 약함을 통감했다고 합니다. 이선애목사는 정치적 탄압, 경제적 빈곤, 문화적 자아 상실, 종교적 다양성이라는 아시아의 현실 속에서 가부장제와 남존여비 사상으로 오직 인내로 살아온 아시아여성들에게 여성들도 남성들과 동등하게 “하느님의 형상”으로(in God's image) 지음 받았다(창세기 1:27)는 사실을 선포하기 위해 1982년 12월에 IGI 창간호를 펴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선애목사의 아시아와의 연대는 1989년에 창립된 한국여성신학자협의회(한국교회여성연합회가 신학을 전공한 여성 지도자들을 초대하여 모인 여성 신학자협의회에서 탄생함)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신협 총무 직을 맡았던 시기에 “아시아여성신학정립협의회”를 2회(1982년에 제1차, 1983년에 제2차)에 걸쳐서 가졌는데, 이 협의회 모두가 이선애목사의 요청과 후원으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제1차 아시아여성신학정립협의회 보고서의 머리말에 나는 “한국여성신학자협의회는 그동안 성차별문제로 인하여 여성이 비인간화되어온 데 대하여... 그 해결책을 모색하며, 여성의 인간화를 위한 노력에 힘써왔다.... 동시에 이미 서구교회 여성 지도자들은 이러한 관점에 눈을 뜨고 성서를 새롭게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여성신학이 여성의 비인간화의 현장에서부터 출발해야한다는 뜻에서 볼 때, 서구의

역사, 문화, 사회와 아시아의 역사, 문화, 사회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아시아의 여성신학의 출발은 다르며 그 내용도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고... 이 협의회는 서구 대(對) 아시아라는 의미에서 아시아 여성신학 정립협의회라고 이름 붙인 것이지, 아시아의 모든 여성신학자들이 모여서 아시아 여성신학을 정립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제1차 아시아여성신학정립협의회는 "한국여성신학의 과제"였으며, 강사는 이화여대의 박순경과 장상, 서울여대의 이우정, 그리고 장신대의 주선에 등의 교수들과 김용복, 주재용, 민영진, 이삼열 등의 남성 신학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약1년 반 후에 모인 제2차 아시아여성신학정립협의회는 강사 전원이 모두 여성이었습니다. 물론 주제가 "한국여성신학의 현장"이었기에 현장이야기는 농촌, 노동, 빈민 분야로 나누어서 활동가들(농촌여성 이준희, 원풍모방 전노조 총무 이옥순, 주부 이옥순)이 맡았고, 사회분석은 사회정의활동가들(엄영애, 조화순, 손덕수)이, 그리고 신학화 작업은 젊은 여성신학도들(김애영, 김희은, 김명희)이 맡았습니다.

나는 제2차 협의회보고서 머리말에 "제1차에서 이론을 세웠다고 한다면, 제2차에서는 우리의 현실과 연관을 시켜서 신학화 작업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본 프로그램 속에... 매춘관광문제의 현장보고와 재미, 제일 교포의 현장보고가 있었다. 그리고 여성평우회(현재의 여성민우회)는 '여성대잔치'를 위해 준비한 연극마당을 우리 프로그램 속에서 한판 벌여 줌으로써 본 협의회를 더욱 우리 마음에 와 닿게 해주었다.... 참가자들은 각 분야의 현장 보고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며 가슴 아파했고, 사회학적 분석에 공감하여 분노하였다. 그리고 하느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과 가난을 함께 이기신 분임을 고백하고 우리들의 무지와 무관심을 회개하였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 제2차 보고서는 거의 전분이 영문화 되어 IGI에 게재되었습니다.

IGI는 아시아의 현장 이야기와 사회과학적 현장분석, 그리고 그 현장과 사회분석을 경험한 후에 그 입장에서 하느님을 이해하는 작업을 나선상의 원형을 들고 돌듯이 되풀이하면서 그 경험을 글로 남기며 모두에게 공감을 호소하는 계간지입니다. 아쉬운 것은 그동안 한국여성신학자협의회 회원들에게 널리 보급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출판물의 언어가 영문이었던기 때문인 것도 있지만, IGI 사무실을 한국으로 옮겨오면서 이선애목사가 병을 얻어 더 이상 IGI 편집자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말레이시아로 사무실을 이전하면서, 사무적으로 연결의 고리가 끊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많은 젊은 여성신학자들이 늘어나고 있기에 이선애목사의 꿈이면서 우리 모든 연배들의 꿈이 현실화되리라 믿습니다. 그것은 IGI에 더 많은 한국여성신학자들의 글이 소개되어 한국여성의 고난의 경험들을, 한국여성신학을 세계에 알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선애목사는 아시아 안에서도 여성신학 정립이 불가능한 나라들에 대한 배려를 하여 그들을 위한 교육, 젊은 세대 육성, 지역별 교류, Conference on Asian Women's Theology, Asian Women's Consultation on Interfaith Dialogue, Workshop on Sexuality, Partnership Program with Cambodian Women, VAW(Violence Against Women) Workshop 등의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위해서 아시아여성자료센터 AWRC(Asian Women Resource Center)를 세웠던 것입니다. IGI가 아시아의 여성신학을 제1세계로 보내는 역할을 하는데 비해, AWRC는 아시아내의 여성신학자로서의 인재를 양성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늦게 시작하기는 했지만, AWRC가 모체가 되어 IGI를 운영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신협과 AWRC가 더욱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내가 IGI 25주년 축하행사를 한국에서 갖는다는 중책을 맡아서 온 후, 사실은 그동안 AWRC 혹은 IGI와 연관을 가지고 일하신 경험이 있는 분들에게 이 행사의 목적과 AWRC의 뜻을 전하는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최만자선생과는 여러 번 만나는 약속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서로의 시간을 맞출 수가 없어서 만남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모두 바쁘신 분들이어서, 그들과 이번 행사를 열어보겠다는 나의 처음 계획을 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여신협 실행위원회에 이 행사를 주관해 달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여신협 실행위원들은 오히려 기쁘게 받아주셔서, IGI 25주년기념행사와 함께 이미 고인이 되신 여신협의 선배들을 기념하는 행사를 겸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여신협은 이미 새로운 세대의 한국여성신학자들의 손에 넘어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한국여성신학을 이어갈 중요한 지도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초창기의 한국여성신학 정립에 공헌을 했고 이미 우리 곁을 떠나가신 분들에 대한 기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사가 여신협을 위해서도 아주 중요한 기회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나는 그 내용을 IGI 25주년 축하예배 자료에 기재한 인사말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IGI 25주년을 축하함과 동시에 한국의 여성신학을 오늘에 있게 한 분들을 기억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분들은 이미 우리 곁을 떠났지만, 이들의 삶의 흔적은 우리들 가슴에 아직 생생하게 남아있습니다. 한때는 대통령의 부인으로 살았으면서도 가장 낮은 자리에서 고통하며 신음하던 고난당한 백성들과 함께하였던 공덕귀선생님, 군사정권에 맞서 차별과 억압으로 울부짖던 한국의 여성노동자들을 작은 몸으로 막아낸 이우정선생님, 미국과 구라파의 가진 자들과 아시아의 갖지 못한 자들 사이의 다리가 되려고 몸을 던진 이선애 목사님, 세상보다 더한 차별과 억압 앞에서 목사의 노예처럼 살고 있는 여교역자들에게 죽으면서까지 힘을 실어준 선순화목사님, 그리고 한국에 오셔서 한국여성신학이 우리들 안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파트너십의 삶을 몸소 보여주시고, 우리의 현장을 세계로 알려주시고 도움을 주신 Letty Russell 박사님 등 5명입니다. 우리가 이들을 잊지 못하는 것은, 이들 모두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억압당한 모든 분들을 위해 살았고, 한국여성, 특히 한국여성신학자들의 대변자로 세계를 향해 외쳐주었기 때문입니다. IGI 25주년을 맞이하여 이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전하며 이들 덕분에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할 수 있으니 더 기쁩니다.”

나에게는 이 다섯 분 모두가 귀중한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는 다시금 나에게 아주 큰 의미를 남겨주었습니다. 그것은 여신신학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느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하고 싶다는 마음은 있어도 해야 한다는 의무감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고 싶어서 모든 일에 덤뻐했습니다. 그리고 불가능할 듯 보일 때가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가능해졌던 것입니다. 그 일은 하느님이 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확실히 하느님의 도구로 쓰인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언제 이 선배들의 뒤를 따라 하느님 곁으로 가게 될지 모르는 내게 소원이 있었습니다. 여신협을 처음 시작했을 때 혼신을 바쳐 함께 했던 친구들과 만나고 싶었습니다. 여신협이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 주기를 간절히 기원했습니다. 그래서 IGI 25주년 축하행사를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추모와 함께 우리들의 이별이 더 슬펐습니다.

IGI 25주년 행사와 In Memory of Foresisters 행사는 아주 성대히 끝났습니다. 그러나 나의 마음 한 구석에 남아있는 슬픔은 아직 그대로입니다. 우리 죽기 전에 다시 합쳐서 한국여성신학의 아름다운 모습을 후배들에게 보여줍시다. 감사합니다.

IGI 25주년 기념과 추모 참관기

다섯 분의 선배 여성신학자 추모행사에 참여하고 나서

강희수 목사

비교적 따뜻한 1월이지만 역시 겨울의 바람은 매서웠다. 25년 전 이선애 목사님이 IGI를 만들때에 주변의 시선이 이러하였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참으로 오랜만에 여신협행사에 참석하였다. 마음으로는 항상 관심을 갖고 있었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우선 순위를 두어서 행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미안한 마음이 있어왔다. 그런데 이번 행사는 참으로 의미있는 행사이었기에 어린 두 딸을 데리고 나섰다. 예전에 '새 하늘 새 땅을 여는 예배'에 참여하였던 경험이 있는 우리 아이들은 오늘은 무슨 일이 있는가 하면서 호기심을 연발하며 동행해주었다.

새롭게 단장한 기독교회관 2층 강당, 낮익은 얼굴들이 들어설 때마다 세월을 느낀다. 머리가 희어지고 세월을 살아온 기록을 주름살로 그런 모습들이지만 눈가의 미소가 반가움을 나타내는 정겨운 분위기였다.

모인 이들의 마음이 오로지 예전의 선배들의 공헌에 대한 회상을 위해서 모였겠는가? 동서사방에서 모인 사람들의 마음은 두 가지 인 것 같다. 한국의 여성신학이 이토록 헌신한 분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발전된 모습이 있구나 하는 감사하는 마음이 첫번째이다. 그러기에 한국 여성신학이 교회와 우리 사회에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한 삶에 대하여 회고할 때에 모두가 숙연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닐까? 요즘처럼 각박하게 자신의 것을 철저히 쟁기는 것이 당연한 일처럼 여기는 우리네 삶에 대하여 다섯분들은 미소짓고 있었다. “좁은 문으로 가야해”라고.

두번째의 마음은 벌써 창립 25주년을 맞이한 IGI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여성신학의 발전에 한국 여성신학자들의 참여가 저조함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하는 자성의 목소리이다.

이선애 목사님이 아시아 여성들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아시아의 여성신학이 서구의 여성신학과 다름에 대하여 논할 수 있는 근거가 될 만한 장(場)을 마련하고 제시한 일은 예언자다운 행보였다. IGI를 통하여 한국의 여성신학은 아시아적 지평을 넓히는 계기가 되어졌다. 하지만 우리의 아시아 여성에 대한 관심이 확장되어지지 못하는 시대가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는 여러가지 생각할 문제들이 있겠지만 단편적으로 보이는 몇가지를 생각해 보았다. 여신협 행사에 자리한 회원들 가운데는 초창기 이후 여신협을 이끌어온 선배들이 변함없는 관심을 가지고 참석하였음을 단번에 볼 수 있다. 그런데 선배들과 같이 나란히 함께 자리하는 후배 회원들의 숫자가 많지 않음을 보게 된다. 휴면상태로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분명 우리의 여성신학이 할 일이 아직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의 분노는 어디로 갔는가? 어느 은퇴한 남성 신학자의 소리가 새삼 생각났다. “여성신학자들은 착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 아직도 멀었다. 남성들은 여성들을 파트너로 생각하려고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왜 다 되었다고 머무르고 있는가? 더 정치적이어야 하고 더 전투적이어야 한다” 성인의 나이에 들어선지 한참인 여신협, 이제는 자연스럽게 후배들이 전통을 물려받았어야 하는데 외

견상으로 볼 때는 아쉬움을 보인다. 한참을 앞장서서 가다보니 지쳐서 뒤에서 따라오던 일행들의 발걸음에 신경쓰지 못했던 것 아닐까? 그런데 분명 후배들은 성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면 후배들의 부족함에도 너그럽게 기다려주는 여유를 기대해본다.

처음 신입회원으로 여신협 정기총회에 참석하였을 때의 기억이다. 형식에 짜인 예배에 익숙하였던 나는 여신협 예배에서 한 사람도 소외됨 없이 골고루 의도적인 나눔을 가지고 참여하도록 하는 예배에 대하여 매우 좋은 인상을 받았다. 여성들의 세심한 배려가 독특하다는 것을 단번에 느낄만한 예배였기 때문이다. 상대에 대한 배려는 곧 자신에 대한 존중감을 얻고자하는 것이 아닌가? 여신협의 후배들은 선배들의 배려 속에서 성장할 것이다. 시행착오를 거듭하더라도 선배들의 배려가 있으면 걸음마는 달음질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섯분의 선배들은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나누었다. 그들의 배려가 오늘의 한국 여성신학을 하는 후배들에게 절실히 그림다면 지나친 어리광일까?

끝으로 다섯분의 선배들을 어떻게 이미지화하면 좋을까를 고심한 흔적이 역력한 주제들을 넣어서 여신협의 발전을 향한 소망을 구절에 담아본다.

빨간 카페트, 빛나는 조명
천정에서 바닥으로 드리워진 천 위에
울곧이 선 미소들과 재회하였다
그들과 함께 낮은 자리에서, 공덕귀
평등사회를 꿈꾸며, 이우정
아하! 여성신학이다, 이선애
민중으로, 생명으로, 선순화
교회를 둥글게, 레티 러셀

겨울 바람을 가르며 모인 소리들
넋을 향한 그리움을 더하네
이 땅 여성들의 아픔과 고통 끌어안고
온 몸으로 싸웠기에
오늘의 안타까움, 우리의 과제 되리라

높은 곳에서 낮은 자가 되고
억누름을 풀어내어
우리의 소리 울려날 때
너와 나는 생명을 살려내고
둥글게 둥글게 하나되리라